

일본정부 셰일가스 개발 출자 확대

최근 법 개정으로 「석유천연가스·금속광물자원기구(JOGMEC)」의 자원 확보를 위한 지원대상이 확대됨에 따라, 민·관 공동으로 셰일가스 개발 참여 등 자원 확보사업이 강화되고 있음

□ JOGMEC 셰일가스 개발 참여

- 일본의 국영기업인 독립행정법인 「석유천연가스·금속광물자원기구(JOGMEC)」가 캐나다 서부 셰일가스 개발에 참여할 방침
 - 광구의 40%(약 530억엔)권익을 취득 한 바 있는 「국제석유개발제석」과 「닛키」의 현지법인에 400억엔을 출자
 - JOGMEC의 자금지원 대상 확대를 위해 개정된 법률이 이달 중 시행됨에 따라, 개발·생산 단계에서 출자가 가능하게 된 첫 번째 사업
- 「국제석유개발제석」과 「닛키」는 현지법인(국제석유개발제석 82%, 닛키 18% 출자)을 통하여 캐나다의 에너지 관련 대기업인 「넥센」으로부터 캐나다 서부지역 브리티시컬럼비아주 3개 광구의 권익 40%를 취득하기로 작년 11월 29일 합의한 바 있음
- 출자는 현지법인이 금년 중 실시하는 제3자 할당증자를 JOGMEC이 인수하는 방식으로 출자비율은 40%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

□ 이제까지 셰일가스 개발은 종합상사에서 선행

- 북미에서 셰일가스개발은 미쓰이물산, 미쓰비시상사 등 종합상사들이 광구권익을 취득하는 등 주도해 왔으나, 석유·천연가스의 개발 분야에서 일본 최대기업인 「국제석유개발제석」이 참여함으로써 일본에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게 됨
 - 「국제석유개발제석」은 석유·천연가스 생산량이 하루 42만배럴(원유환산)에 달하는 일본 최대 기업
 - * 호주 북서부에서 대형가스전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아시아를 중심으로 천연가스 수요가 증가할 것에 대비, 개발구역을 다양화하고 있음
 - 「닛키」는 LNG플랜트 건설 수주에서 우위 차지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음
 - * 한국기업의 참여로 플랜트 수주경쟁이 한층 치열해진 가운데, 일본의 자원개발 회사와의 관계를 심화시켜 왔으며, 2011년 들어 자원권익 확보를 위한 투자를 가속화하고 있음.
- 「국제석유개발제석」등은 2017~2018년 기간 중 본격적인 생산을 목표로 액화천연가스(LNG)의 對日 수출도 검토하고 있음
 - JOGMEC의 자금은 LNG플랜트 건설 및 캐나다 태평양 연안의 수출기지 정비에 충당함

<일본정부의 자금지원 종류>

	조사 단계	탐광 단계	개발·생산 단계
천연가스	보조금	출자	출자
금속광물		출자·융자	채무보증
석탄			출자
지열		출자	채무보증

주: 음영 부분은 이번 법 개정으로 추가

- 경제산업성은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가면, 일본의 연간 LNG수입량의 약 5%에 상당하는 하루 생산량 8만 바렐로 예상

□ 관련 법 개정으로 지원대상이 확대

- JOGMEC의 지원대상은 지금까지 자원매장량을 조사하는 시굴 등이 중심이었는데, 법률 개정으로 천연가스나 금속광물의 권익을 매수, 본격적인 개발, 생산에 착수하는 일본기업에 출자가 용이
 - 석탄, 지열 분야의 개발·생산 단계에서도 채무보증을 통하여 기업의 자금수요에 대응하기가 용이
- 경제산업성은 천연가스의 경우 탐광 단계에서의 비용은 수백억엔, 개발·생산에서는 수천억엔이 필요함으로 재정투융자 자금 등을 활용하여 지원할 계획
- 단, 투융자처의 사업이 실패하는 경우, 손실 보전을 위해 세금을 투입, 국민 부담을 증대시킬 우려도 제기
 - JOGMEC의 전신인 舊석유공단이 유전개발 실패로 수천억엔의 누적손실을 발생시켜 폐지된 경위도 있음
 - 이 때문에 일본정부는 일본기업에 출자하는 경우도 비율을 50% 미만으로 하는 등 JOGMEC의 권한에 일정부분 제동을 걸고 있음
- 원전 사고 이후, 전원에서 차지하는 화력발전의 비중이 높아져, 화석연료 수입이 급증
 - 일본정부는 자원확보전략에서 권익 취득을 위한 자금공급기능 강화를 5대 사업의 하나로 제시하고 일본기업들의 해외자원매수를 지원할 방침

□ 시사점

- 자원 보유국들이 수출규제를 강화함에 따라, 자원의 안정적 조달을 위해 가스 및 광물의 권익 확대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
 - 일본은 미국의 셰일가스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캐나다에서 셰일가스 개발을 추진
- 우리로서도 자원·에너지 절약형 산업으로 재편해 나가면서 안정적인 자원 확보를 위한 정책을 최우선순위에 놓고 총력을 전개
 - 특히, 자원개발과 생산을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만큼, 일본이 시행하고 있는 투융자제도를 참고하여 자금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임

<참고자료>

일본경제신문(2012.9.13)